

# 유럽의 최신 임금변동 현황 및 전망

이규영 (독일 카셀대학교 박사과정(경제학))

## ■ 머리말

최근 유럽의 경제발전 상황을 살펴보면, 국가별로 매우 상이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독일과 중부유럽지역 국가들처럼 2010년부터 전년도의 경제위기로부터 벗어나 회복세에 접어든 국가들이 있는 반면, 그리스를 포함한 일부 남동부지역 국가들의 경우 여전히 경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럽의 전반적인 임금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각국의 경제발전 수준에 영향을 받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유럽지역 전반의 실질임금 수준은 정체하는 현상을 보였으며, 2011년부터는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실질임금 정체 및 감소의 원인으로는 경제위기의 부담을 근로자 일방에게 전가하거나 임금축소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던 유럽 전반의 위기극복 정책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최근에 발간된 경제사회연구소(WSI)의 보고자료를 기초로 하여 유럽 지역의 최신 임금변동 현황을 살펴보고, 2011년 전망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 ■ 유럽의 경제성장을 및 노동시장 변동 현황

2009년에 유럽은 유럽연합(EU) 출범 이후로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이하였으며, 이로 인

해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전체평균 국내총생산(BIP)이 전년 대비 -4.2%로 감소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2010년에 접어들면서부터 유럽 전체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약 1.8% 증가하는 등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표 1 참조).<sup>1)</sup> 국가별로 살펴보면, 수출지향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독일, 핀란드, 스웨덴과 슬로바키아의 경우 경제위기를 상대적으로 잘 극복하였으며, 이들의 전년 대비 경제성장률은 3~5.5% 수준이었다. 이와는 반대로 남부유럽 지역의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과 동부유럽지역의 불가리아, 라트비아, 루마니아 그리고 아일랜드의 경우 2010년에도 경제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국가부도 상황이라는 초유의 경제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그리스의 2010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4.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영국 등 나머지 국가들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1~2%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위원회(Europäische Kommission)에서는 개별 회원국들의 경기변동 상황이 201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1년 유럽 전체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1.8%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심각한 채무위기 상황에 놓인 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평균치에도 못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럽 국가들의 상이한 경제발전 수준은 각국의 노동시장 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기침체 상황에 놓여 있는 남동부유럽지역 국가들과 아일랜드의 경우 2009년에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도 재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유럽연합 27개국 중에서 10여 개 국가들의 실업률이 10% 이상이였으며,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한 국가는 스페인이 20%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발틱해 연안의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가 각각 18.7%와 17.8%의 실업률을 기록했다.

그 밖의 유럽연합 14개국의 실업률은 6~10% 수준이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2010년에 실업률 증가를 경험하였다. 마지막으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의 경우 실업률이 5% 이하였다.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한 국가들은 비유럽연합 회원국인 노르웨이와 스위스

1) Schulten(2011), Europäischer Tarifbericht des WSI 2010/2011, WSI Mitteilungen 7/2011, p. 355; IMK / OFCE / WIFO(2011), Der Euroraum im Umbruch, IMK Report Nr. 61, p. 1.

<표 1> 2008~2011년 유럽의 경제성장률 및 실업률 현황

(단위: 전년 대비 증감, %)

	국내총생산(BIP)				실업률(Arbeitslosigkeit)			
	2008	2009	2010	2011	2008	2009	2010	2011
<b>기존 EU 회원국</b>								
벨기에	1.0	-2.8	2.2	2.4	7.0	7.9	8.3	7.9
덴마크	-1.1	-5.2	2.1	1.7	3.3	6.0	7.4	7.1
독일	1.0	-4.7	3.6	2.6	7.5	7.8	7.1	6.4
핀란드	0.9	-8.2	3.1	3.7	6.4	8.2	8.4	7.9
프랑스	0.2	-2.6	1.6	1.8	7.8	9.5	9.7	9.5
그리스	1.0	-2.0	-4.5	-3.5	7.7	9.5	12.6	15.2
영국	-0.1	-4.9	1.3	1.7	5.6	7.6	7.8	8.0
아일랜드	-3.5	-7.6	-1.0	0.6	6.3	11.9	13.7	14.6
이탈리아	-1.3	-5.2	1.3	1.0	6.7	7.8	8.4	8.4
룩셈부르크	1.4	-3.6	3.5	3.4	4.9	5.1	4.5	4.4
네덜란드	1.9	-3.9	1.8	1.9	3.1	3.7	4.5	4.2
오스트리아	2.2	-3.9	2.0	2.4	3.8	4.8	4.4	4.3
포르투갈	0.0	-2.5	1.3	-2.2	7.7	9.6	11.0	12.3
스웨덴	-0.6	-5.3	5.5	4.2	6.2	8.3	8.4	7.6
스페인	0.9	-3.7	-0.1	0.8	11.3	18.0	20.1	20.6
<b>신규 EU 회원국</b>								
불가리아	6.2	-5.5	0.2	2.8	5.6	6.8	10.2	9.4
에스토니아	-5.1	-13.9	3.1	4.9	5.5	13.8	16.9	13.0
라트비아	-4.2	-18.0	-0.3	3.3	7.5	17.1	18.7	17.2
리투아니아	2.9	-14.7	1.3	5.0	5.8	13.7	17.8	15.5
말타	5.3	-3.4	3.7	2.0	5.9	7.0	6.8	6.8
폴란드	5.1	1.7	3.8	4.0	7.1	8.2	9.6	9.3
루마니아	7.3	-7.1	-1.3	0.5	5.8	6.9	7.3	7.2
슬로바키아	5.8	-4.8	4.0	3.5	9.5	12.0	14.4	14.0
슬로베니아	3.7	-8.1	1.2	1.9	4.4	5.9	7.3	8.2
헝가리	0.8	-6.7	1.2	2.7	7.8	10.0	11.2	11.0
체코	2.5	-4.1	2.3	2.0	4.4	6.7	7.3	6.8
키프로스	3.6	-1.7	1.0	1.5	3.6	5.3	6.5	6.3
전체 EU 27개국	0.5	-4.2	1.8	1.8	7.1	9.0	9.6	9.5
노르웨이	0.8	-1.4	0.4	2.7	2.5	3.1	3.5	3.5
스위스	1.9	-1.9	2.6	1.9	3.2	2.9	2.8	2.8

자료: Schulten, WSI Mitteilungen 7/2011, p. 356.

로 각각 3.5%와 2.8%를 나타냈다. 룩셈부르크와 더불어 독일은 2010년에 실업률이 감소한 유일한 나라였으며, 실업률이 경제위기 이전인 2008년 수준에 불과했다.

전체 유럽국가들의 2010년 평균 실업자수는 공식적으로 약 2,300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평균 실업률은 9.6%였다. 유럽연합위원회에서는 2011년에도 전체 평균치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이나 스웨덴과 같이 실업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업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실업률 증가로 인해 대다수 유럽국가들의 노동조합 교섭력은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임금변동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 유럽의 소비자물가 및 노동생산성 변동 현황

경제성장률과 노동시장 상황 외에도 임금교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바로 물가와 노동생산성(Arbeitsproduktivität) 변화율이다. 특히 소비자물가와 노동생산성 변동률의 합을 통해서 임금정책적 인상한계율(Verteilungsspielraum)이 산정되는데, 이는 근로자들의 실질구매력을 감안한 임금인상 가능범위를 설정하는 데 매우 주요한 지표로 사용된다.<sup>2)</sup>

2009년 유럽 전체의 평균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1.0%가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도 2.1%가 증가하였다(표 2 참조). 2010년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국가들은 루마니아가 6.1%, 그리스와 헝가리가 각각 4.7%, 그리고 영국이 3.3%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가 감소한 나라들은 아일랜드와 라트비아뿐이었다. 유럽연합위원회에서는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및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말미암아 유럽국가 전체의 2011년 평균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Scheuerle(2011), Tariflohnrunde 2011 – auf vernünftigem Kurs, p. 4; Pusch(2011), Lohnpolitische Koordinierung in der Eurozone, p. 5.

〈표 2〉 2008~2011년 유럽의 물가, 노동생산성 및 인상한계율 변동 현황

(단위: 전년 대비 증감, %)

	소비자물가				노동생산성				인상한계			
	2008	2009	2010	2011	2008	2009	2010	2011	2008	2009	2010	2011
<b>기존 EU 회원국</b>												
벨기에	4.5	-0.0	2.3	3.6	-0.7	-2.4	1.5	1.6	3.8	-2.4	3.8	5.1
덴마크	3.6	1.1	2.2	2.5	-2.9	-2.2	4.2	1.6	0.7	-1.1	6.4	4.1
독일	2.8	0.2	1.2	2.6	-0.4	-4.7	3.1	1.6	2.4	-4.5	4.2	4.2
핀란드	3.9	1.6	1.7	3.6	-0.6	-5.6	3.5	2.7	3.3	-4.0	5.2	6.3
프랑스	3.2	0.1	1.7	2.2	-0.5	-1.4	1.5	0.9	2.7	-1.3	3.2	3.2
그리스	4.2	1.3	4.7	2.4	0.8	-1.3	-2.4	-0.9	5.1	0.0	2.3	1.5
영국	3.6	2.2	3.3	4.1	-0.8	-3.4	1.0	1.3	2.8	-1.2	4.3	5.4
아일랜드	3.1	-1.7	-1.6	1.0	-2.4	0.6	3.2	2.2	0.7	-1.1	1.7	3.2
이탈리아	3.5	0.8	1.6	2.6	-0.9	-2.6	2.0	0.6	2.6	-1.9	3.7	3.1
룩셈부르크	4.1	0.0	2.8	3.5	-3.2	-4.5	1.9	1.3	0.9	-4.5	4.7	4.8
네덜란드	2.2	1.0	0.9	2.2	0.6	-2.8	2.4	1.4	2.9	-1.8	3.3	3.7
오스트리아	3.2	0.4	1.7	2.9	0.5	-2.3	1.0	1.6	3.8	-1.9	2.7	4.4
포르투갈	2.7	-0.9	1.4	3.4	-0.5	-0.0	2.9	-0.8	2.2	-0.9	4.3	2.6
스웨덴	3.3	1.9	1.9	1.7	-1.5	-3.4	4.4	2.2	1.8	-1.4	6.3	3.9
스페인	4.1	-0.2	2.0	3.0	1.4	3.1	2.3	1.4	5.5	2.9	4.3	4.4
<b>신규 EU 회원국</b>												
불가리아	12.0	2.5	3.0	4.3	3.5	-2.9	6.4	2.3	15.4	-0.5	9.4	6.6
에스토니아	10.6	0.2	2.7	4.7	-5.2	-4.4	8.3	0.6	5.4	-4.2	11.1	5.3
라트비아	15.3	3.3	-1.2	3.4	-5.1	-5.5	4.6	1.8	10.1	-2.3	3.4	5.2
리투아니아	11.1	4.2	1.2	3.2	3.6	-8.5	6.8	2.8	14.7	-4.3	8.0	6.0
말타	4.7	1.8	2.0	2.7	2.6	-3.1	1.4	0.7	7.3	-1.2	3.5	3.4
폴란드	4.2	4.0	2.7	3.8	1.3	1.3	3.4	2.9	5.5	5.3	6.1	6.7
루마니아	7.9	5.6	6.1	6.7	7.3	-5.4	0.5	1.3	15.2	0.2	6.6	8.0
슬로바키아	3.9	0.9	0.7	3.6	2.8	-2.3	5.5	2.9	6.7	-1.4	6.2	6.6
슬로베니아	5.5	0.9	2.1	2.6	0.9	-6.4	3.4	3.3	6.5	-5.5	5.5	5.8
체코	6.3	0.6	1.2	2.3	1.2	-3.0	3.1	2.0	7.5	-2.4	4.4	4.3
헝가리	6.0	4.0	4.7	4.0	2.1	-4.0	1.0	2.3	8.2	0.1	5.7	6.3
키프로스	4.4	0.2	2.6	3.4	0.8	-1.0	1.3	1.3	5.2	-0.8	3.9	4.7
전체 EU 27개국	3.7	1.0	2.1	3.0	0.3	-2.3	2.3	1.4	3.9	-1.3	4.3	4.4
노르웨이	3.4	2.3	2.3	1.9	-2.2	-0.8	0.6	2.2	1.2	1.5	3.0	4.0
스위스	2.3	-0.7	0.6	1.0	0.0	-4.1	0.4	-0.3	2.4	-4.7	1.0	0.7

자료: Schulten, WSI Mitteilungen 7/2011, p. 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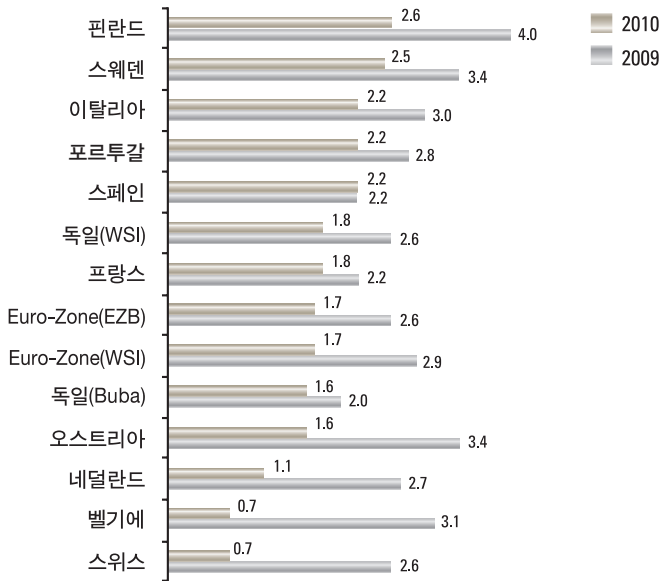
한편, 2010년 유럽 전체의 평균 노동생산성은 전년 대비 2.3%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에스토니아 8.3%와 리투아니아 6.8%를 비롯하여 일부 동유럽지역 국가들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대부분이 경제위기가 한창이었던 2009에 급격한 노동생산성 감소를 경험하였다. 독일을 비롯하여 중부유럽지역의 수출지향적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유럽 전체 평균치 이상으로 노동생산성이 증가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그리스는 유럽에서 유일하게 2010년 노동생산성이 마이너스(-2.4%)를 기록하였다. 유럽 연합위원회에서는 현재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노동생산성 감소로 인해 2011년 유럽 전체의 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전년 대비 약 1.4%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가상승 및 노동생산성 증가로 인해 2010년 유럽 전체의 평균 인상한계율은 4.3%로 나타났다. 임금정책적 인상한계율이 높은 국가들은 에스토니아(11.1%)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로 평균 6~10% 사이의 수치를 보였다. 서유럽지역 국가들의 2010년 평균 인상한계율은 3~5% 사이에 머물렀으며, 가장 높게는 덴마크와 스웨덴이 각각 6.4%와 6.3%의 인상한계율을 나타냈다. 반면에 그리스와 아일랜드는 각각 2.3%와 1.7%로 가장 낮은 인상한계율 수치를 기록했다. 2011년 유럽지역 전체의 인상한계율 전망을 살펴보면, 대다수 국가들의 노동생산성 감소로 인해 인상한계율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나 물가상승으로 인해 감소율이 어느 정도는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1년 유럽 전체의 인상한계율은 4.4%로 예상되며, 이는 전년도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 ■ 유럽의 협약임금 변동 현황

유럽국가들의 협약임금(Tariflöhne)과 관련하여 유럽연합 차원의 통일적인 통계자료 산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국가별로 상호 비교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존재한다. 현재 유럽지역 협약임금 비교를 위해 사용가능한 유일한 데이터는 유럽중앙은행(EZB)에

[그림 1] 2009/2010년 명목임금 변동 현황  
(단위: 전년 대비, %)



자료: Schulten, WSI Mitteilungen 7/2011, p. 358.

이더가 있으며, 양자간에 내용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편, 동부지역 및 기타 유럽국가들의 경우 비교가능한 공식적인 임금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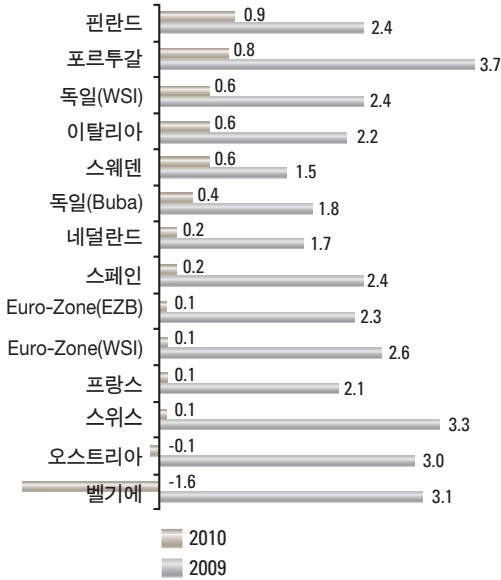
2010년 유로존 전체의 명목임금은 전년 대비 1.7% 상승하였다(그림 1 참조). 명목임금의 증가범위는 핀란드의 2.6%에서 벨기에의 0.7%까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연방은행(Buba) 산정치에 따르면 명목임금 상승률이 1.6% 그리고 경제사회연구소(WSI)의 산정치에 따르면 1.8%로 나타나 유로존 전체 평균치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9년 유로존 전체의 명

서 유럽경제통화공동체(Europäische Wirtschafts- und Währungsunion: EWU)에 속한 9개 회원국의 국가별 협약임금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유로존(Euro-Zone) 협약임금지수가 있다.<sup>3)</sup> 따라서 유럽중앙은행에서는 유로존 전체의 평균 협약임금뿐만 아니라, 국가별로 협약임금 데이터를 집계 및 산정하여 발표한다.

독일의 협약임금 관련 데이터는 독일 연방은행(Bundesbank: Buba)에서 산정한 임금데이터와 한스-뵐클러 재단(Hans-Böckler-Stiftung) 산하 경제사회연구소(WSI)에서 매년 실시된 임금협상을 근거로 하여 산정한 임금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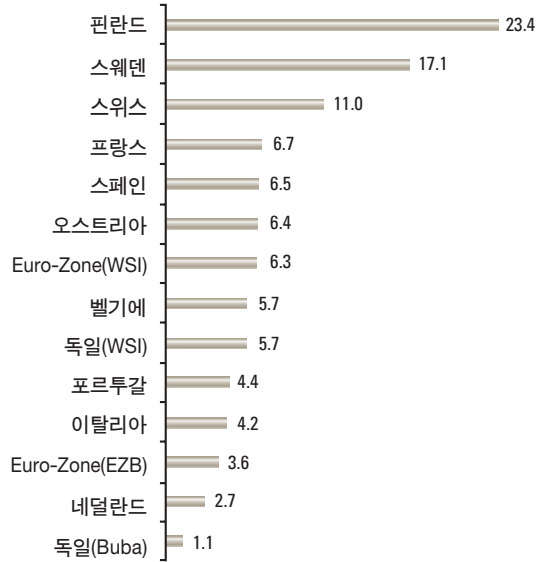
3) 유로존이란 국가통화로 유로를 사용하는 국가 및 지역을 말하며, 협약임금 데이터 산정에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핀란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의 9개국 자료가 포함되며, 이들 국가의 협약임금 관련 데이터는 각국의 노동부를 거쳐 통계청이나 중앙은행에서 산정된다.

[그림 2] 2009/2010년 실질임금 변동 현황  
(단위: 전년 대비, %)



자료: Schulten, WSI Mitteilungen 7/2011, p. 359.

[그림 3] 2000~2010년 실질임금 변동 현황  
(단위: %)



자료: Schulten, WSI Mitteilungen 7/2011, p. 359.

목임금 증가율이 2.6%(EBZ)와 2.9%(WSI)였던 것과 비교하면, 2010년에 대다수 국가들의 명목 임금 증가율은 대체로 낮은 편이었다.

소비자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임금 변동을 살펴보면, 2009년에 비해 2010년에는 유로존 국가들 대다수가 실질임금 증가율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 참조). 2010년 유로존 전체의 평균 실질임금 증가율은 전년 대비 0.1%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도의 2.3%(EZB)와 2.6%(WSI)에 비하면 상당히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핀란드의 실질임금 증가율이 전년 대비 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벨기에와 오스트리아의 경우 오히려 실질임금이 각각 -1.6%와 -0.1%로 감소하였다. 한편, 독일의 실질임금 증가율은 0.4%(Buba)와 0.6%(WSI)로 집계되어 상대적으로 상위권 그룹에 속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지난 10년(2000~2010년) 동안 유로존 지역의 실질임금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국가



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그림 3 참조). 핀란드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실질임금이 23% 이상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스웨덴이 약 17% 그리고 스위스가 약 11%의 증가율을 보였다. 독일의 경우 임금데이터 출처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였는데, 경제사회연구소(WSI) 산정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5.7%의 실질임금 증가가 있었으며, 연방은행(Bundesbank)의 산정자료에 따르면 단지 1.1%의 실질임금 상승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0년 동안 유로존 전체의 평균 실질임금 증가율은 독일 연방은행의 데이터를 통해 산정한 유럽중앙은행(EZB) 자료에 따르면 약 3.6% 그리고 독일 경제사회연구소(WSI)의 데이터를 통해 산정한 결과 약 6.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유럽의 유효임금 변동 현황

유효임금(Effektivlöhne)이란 단체협약을 기초로 한 협약임금(Tariflöhne) 이외에 경제전체에 걸쳐 실제로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유효임금에는 단체협약상에 명시된 협약임금뿐만 아니라, 초과근무수당이나 기타 상여금 지급액 등이 모두 포괄된다. 따라서 유효임금은 경기변동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 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경기호황시에는 협약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렇듯 실제 협약임금과 유효임금의 차이를 바로 임금드리프트(Lohndrift)라 일컫는다.<sup>4)</sup> 특히 유효임금은 근로시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초과근무는 양(+의 임금드리프트, 반면에 조업단축은 음(-) 임금드리프트 결과로 작용한다.

2010년 유럽연합 27개국의 평균 명목유효임금(effektive Nominallöhne) 증가율은 2.1%로 전년도의 1.6%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표 3 참조). 명목유효임금 증가율이

4) <http://www.wirtschaftslexikon24.net/d/effektivlohn/effektivlohn.htm>

〈표 3〉 2008~2011년 유럽의 유효임금변동 및 임금수지 현황

(단위: 전년 대비 증감, %)

	명목유효임금				실질유효임금				임금수지율 <sup>1)</sup>			
	2008	2009	2010	2011	2008	2009	2010	2011	2008	2009	2010	2011
<b>기존 EU 회원국</b>												
벨기에	3,6	1,8	1,1	3,1	-0,9	1,8	-1,3	-0,4	-0,1	4,2	-2,7	-2,0
덴마크	3,6	2,4	2,7	1,7	0,0	1,3	0,5	-0,8	3,0	3,5	-3,7	-2,4
독일	2,0	0,2	2,2	2,7	-0,8	-0,0	1,0	0,1	-0,4	4,7	-2,0	-1,6
핀란드	5,1	1,7	2,0	2,8	1,2	0,1	0,3	-0,8	1,8	5,7	-3,2	-3,5
프랑스	2,4	1,6	2,3	2,0	-0,8	0,5	0,6	-0,3	-0,3	2,9	-0,9	-1,2
그리스	7,0	3,6	-3,5	-1,0	2,8	2,2	-8,2	-3,4	2,0	3,6	-5,8	-2,5
영국	1,5	2,5	3,2	2,8	-2,2	0,4	-0,1	-1,4	-1,4	3,7	-1,1	-2,7
아일랜드	3,4	0,0	-1,9	-0,3	0,3	1,7	-0,3	-1,3	2,7	1,1	-3,5	-3,5
이탈리아	3,8	1,5	2,0	1,5	0,3	0,8	0,4	-1,1	1,2	3,4	-1,7	-1,6
룩셈부르크	2,1	1,8	1,6	2,0	-2,0	1,8	-1,2	-1,5	1,2	6,4	-3,1	-2,8
네덜란드	3,6	2,2	1,1	2,9	1,4	1,2	0,2	0,6	0,8	4,0	-2,2	-0,8
오스트리아	3,2	2,3	1,6	2,5	0,0	1,9	-0,1	-0,3	-0,5	4,2	-1,1	-1,9
포르투갈	3,0	3,3	1,5	-0,3	0,4	4,2	0,1	-3,6	0,8	4,2	-2,8	-2,9
스웨덴	1,5	1,3	2,7	2,8	-1,8	-0,7	0,8	1,1	-0,3	2,7	-3,6	-1,0
스페인	6,4	4,1	0,7	0,9	2,2	4,3	-1,3	-2,1	0,8	1,2	-3,6	-3,5
<b>신규 EU 회원국</b>												
불가리아	16,3	9,4	7,2	7,1	4,4	7,0	4,2	2,8	0,9	9,9	-2,2	0,5
에스토니아	10,1	-3,3	-0,2	4,4	-0,5	-3,5	-3,0	-0,3	4,8	0,9	-11,3	-0,9
라트비아	15,7	-12,2	-6,5	1,5	0,5	-15,4	-5,2	-1,9	5,6	-9,9	-9,9	-3,7
리투아니아	14,3	-11,1	-1,3	3,4	3,2	-15,3	-2,5	0,2	-0,4	-6,8	-9,3	-2,6
말타	4,9	2,9	-1,7	2,0	0,2	1,1	-3,7	-0,6	-2,4	4,1	-5,2	-1,3
폴란드	8,9	2,9	4,7	5,9	4,7	-1,1	2,1	2,1	3,4	-2,4	-1,3	-0,8
루마니아	31,9	-6,6	1,3	2,2	24,0	-12,2	-4,7	-4,5	16,7	-6,8	-5,3	-5,9
슬로바키아	6,9	5,0	2,7	3,9	3,0	4,1	2,0	0,2	0,2	6,4	-3,5	-2,7
슬로베니아	7,0	1,6	4,1	2,4	1,4	0,8	2,0	-0,1	0,5	7,1	-1,5	-3,4
체코	6,3	0,4	2,9	2,5	0,1	-0,2	1,7	0,2	-1,1	2,8	-1,4	-1,8
헝가리	7,0	-2,2	-0,2	2,6	1,0	-6,2	-4,9	-1,4	-1,2	-2,2	-5,9	-3,7
키프로스	2,3	3,2	2,8	3,8	-2,0	3,1	0,3	0,4	-2,8	4,1	-1,1	-0,9
전체 EU 27개국	3,2	1,6	2,1	2,3	-0,5	0,6	0,0	-0,8	-0,7	2,9	-2,2	-2,2
노르웨이	6,2	3,6	3,8	3,5	2,7	1,3	1,5	1,6	5,0	2,1	0,8	-0,5
스위스	2,9	0,9	-1,1	4,1	0,5	1,6	-1,8	3,1	0,5	5,6	-2,1	3,4

주: 1) 임금수지율(Verteilungsbilanz) = 명목임금 증가율 - 인상한계율(Verteilungsspielraum)

자료: Schulten, WSI Mitteilungen 7/2011, p. 360.

높은 국가들로는 주로 동유럽지역의 불가리아가 7.2%, 폴란드와 슬로베니아가 각각 4.7%와 4.1%로 나타났다. 서유럽지역의 명목유효임금 증가율을 살펴보면, 영국이 3.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덴마크와 스웨덴이 각각 2.7%의 증가율을 보였다. 독일의 2010년 명목유효임금 증가율은 전년 대비 약 2.2%로 유럽 전체 평균치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라트비아(-6.5%)를 비롯한 일부 동유럽지역 국가들과 그리스(-3.5%) 및 아일랜드(-1.9%)의 경우 오히려 명목유효임금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특히 이들 국가의 임금감소는 주로 공공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경제위기 극복 및 공공부문 채무증가의 해결책으로 대다수 유럽국가들이 공공부문의 임금축소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에서 심한 경우 약 30%까지 임금축소를 실시한 경우도 있다.

협약임금의 발전 동향과는 달리 유효임금은 2009년의 경제위기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증가율이 대체로 낮은 편이었다. 특히 조업단축의 증가와 이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협약임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명목유효임금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벨기에,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2010년에 접어들면서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았던 조업단축 규정들이 만료되어 조업단축이 감소하고 근로시간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유효임금이 협약임금보다 더 크게 증가하였다. 유럽연합위원회에서는 2011년 유럽 전체의 명목유효임금 증가율은 그리스, 아일랜드 및 포르투갈의 유효임금 감소 예상에도 불구하고 2010년과 비슷한 수준인 2.3%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2010년의 급격한 물가상승률로 인해 대다수 유럽 국가들의 실질유효임금(effektive Reallöhne)은 전년 대비 소폭으로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유럽연합 전체 27개국 중에서 13개 국가들과 비회원국인 스위스의 경우 오히려 실질유효임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특히 가장 큰 감소치를 보인 나라는 역시 그리스로 실질임금이 8.2%나 감소하였다. 물론 유럽 전체의 평균 실질유효임금 증가율은 2010년에 마이너스를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정체(0.0%)되어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유럽연합위원회에서는 2011년에도 물가상승률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로 인해 전체 27개국 중 18개 국가에서 실질유효임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2011년 유럽 전체의 평균 실질유효임금 증가율은 그리스, 포르투갈 및 스페

인 등의 실질임금 손실 전망으로 말미암아 -0.8%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독일의 경우 실질 유효임금이 약 0.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마지막으로 명목유효임금 증가율과 <표 2> 상의 인상한계율의 차이를 통해 계산되는 임금수지율을 살펴보면, 2010년에 유럽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이는 유럽의 어느 국가도 물가상승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합으로 산정되는 인상한계율을 상회하는 수준의 명목 유효임금 증가율을 보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럽 전체의 평균 임금수지율은 -2.2%로 나타났으며, 2011년에도 동일한 수준의 마이너스 수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 맺음말

유럽의 임금변동 현황을 종합해 보면, 2010년 유럽 전체의 실질유효임금 증가율은 전년 대비 동일한 수준(0.0%)으로 정체된 모습을 보였으며, 2011년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및 스페인과 같이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할 정도로 유럽 경제위기의 핵심에 놓여 있는 나라들의 경우 실질임금 감소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동유럽지역 국가들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임금변동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현재 독일과 같이 경기회복세에 접어든 국가들의 경우에도 경제 전체적인 임금증가율은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유럽 내 국가들의 임금변동 추이는 유럽의 구조적인 경제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해나가는 데 긍정적인 자극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KLI**

---



---

**참고문헌**


---



---

- European Commission(2011), European Economic Forecast, Spring 2011. [http://ec.europa.eu/economy\\_finance/publications/european\\_economy/2011/pdf/ee-2011-1\\_en.pdf](http://ec.europa.eu/economy_finance/publications/european_economy/2011/pdf/ee-2011-1_en.pdf)
- \_\_\_\_\_(2011), Statistical Annex of European Economy, Spring 2011. [http://ec.europa.eu/economy\\_finance/publications/european\\_economy/2011/pdf/2011-05-13-stat-annex\\_en.pdf](http://ec.europa.eu/economy_finance/publications/european_economy/2011/pdf/2011-05-13-stat-annex_en.pdf)
- IMK / OFCE / WIFO(2011), Der Euroraum im Umbruch: Erste gemeinsame Diagnose des Makro-Konsortiums, IMK Report Nr. 61. [http://www.boeckler.de/pdf/p\\_imk\\_report\\_61\\_2011.pdf](http://www.boeckler.de/pdf/p_imk_report_61_2011.pdf)
- Pusch, Toralf(2011), Lohnpolitische Koordinierung in der Eurozone: Ein belastbares Konzept für mehr makroökonomische Stabilität?, Friedrich-Ebert-Stiftung. <http://library.fes.de/pdf-files/id/ipa/07931.pdf>
- Scheuerle, Andreas(2011), Tariflohnrunde 2011 – auf vernünftigem Kurs, Deka-Bank Makro Research.
- Schulten, Thorsten(2010), Europäischer Tarifbericht des WSI 2009/2010, WSI Mitteilungen 4/2010, pp. 196~203.
- \_\_\_\_\_(2011), Europäischer Tarifbericht des WSI 2010/2011, WSI Mitteilungen 7/2011, pp. 355~362.